



그림으로 보는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Factbook

2019

INFOGRAPHICS

2019

그림으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분야별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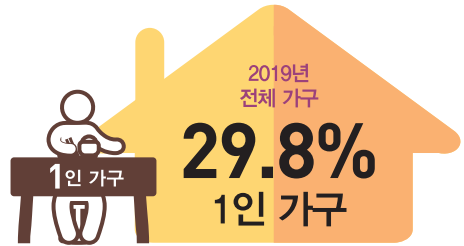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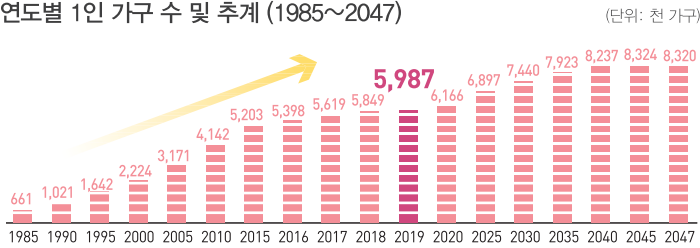


가족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가구의 29.8%(약 599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연도별 1인 가구 수 및 추계 (1985~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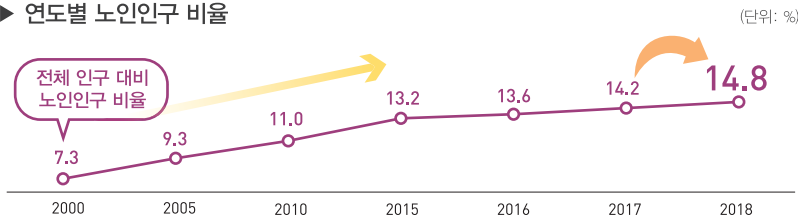


주: 1) 1985~2018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19~2047년은 장래가구추계에서 발표된 1인 가구 추계임.
2) 2010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 방식의 집계결과이며, 2015년~2018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3) 가구 수 천 단위 표기 시, 백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14. 인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0~2047년 (<http://kosis.kr>에서 2020.2.2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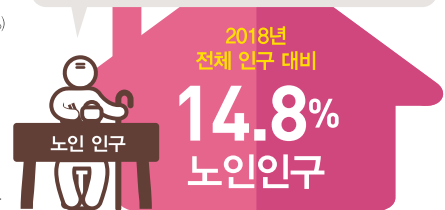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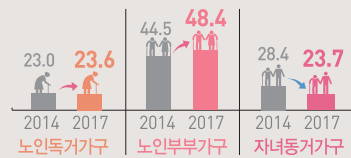
노인인구 비율

2018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8%로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노인가구 중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독거가구는 2014년 23.0%에서 2017년 23.6%로 노인부부가구는 44.5%에서 48.4%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014년 28.4%에서 2017년 23.7%로 감소

▶ 연도별 노인인구 비율



가구 형태별 노인가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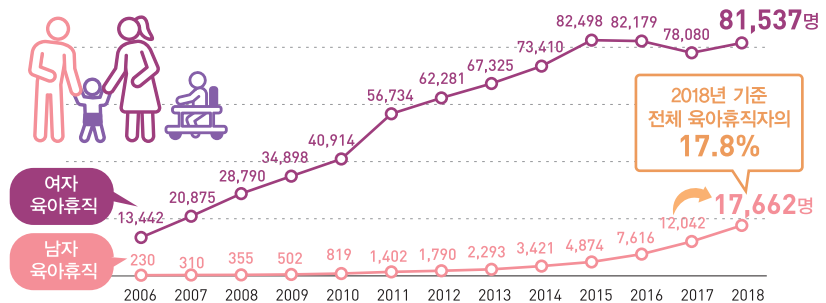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14. 인출) 보건복지부 등,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 추세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최근 급증하여 2018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를 차지

▶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 (2006~20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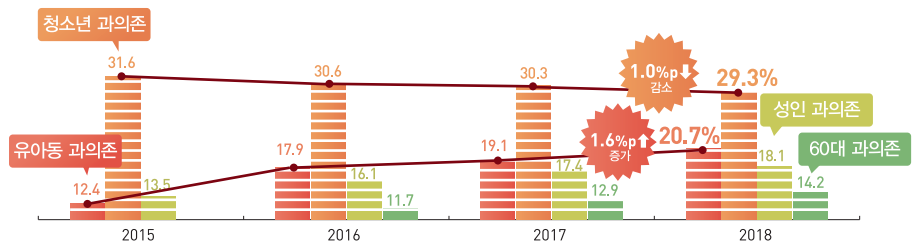
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8년 29.3%로 2017년에 비해 1%p 감소한 반면,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7%로 2017년에 비해 1.6%p 높아졌으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

▶ 연령대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2015~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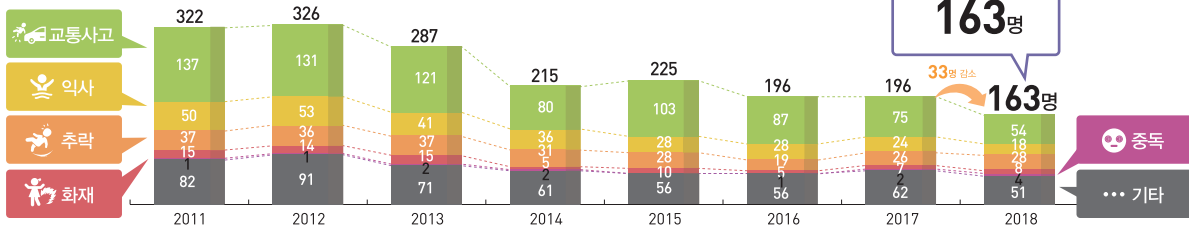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15. 인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63명으로 2017년 196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와 익사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추락, 화재 등은 다소 증가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유형별 현황 (2011~2018)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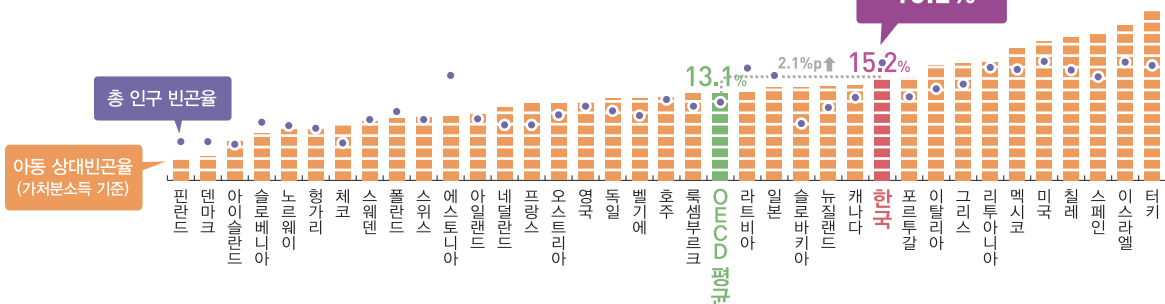
주: 통계표 사망통계자료(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5. 인출)

아동 빈곤율

우리나라 아동의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15.2%로 OECD 평균 13.1%에 비해 다소 높으며,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이 최근 다소 증가

▶ OECD 국가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아동 빈곤율 (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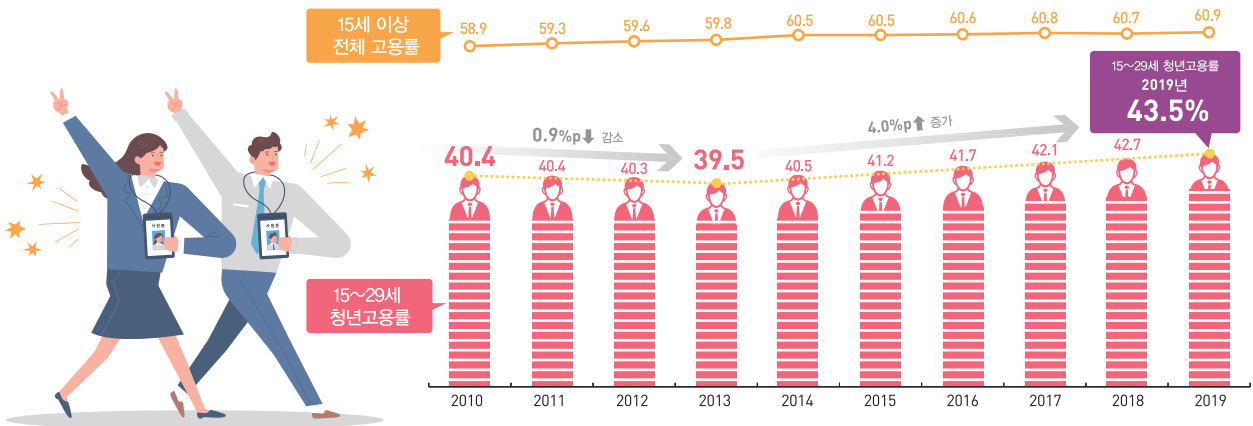


청년고용률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10년 40.4%에서 2013년 39.5%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43.5%에 이릅니다.

▶ 청년 및 전체 연령 고용률 (2010~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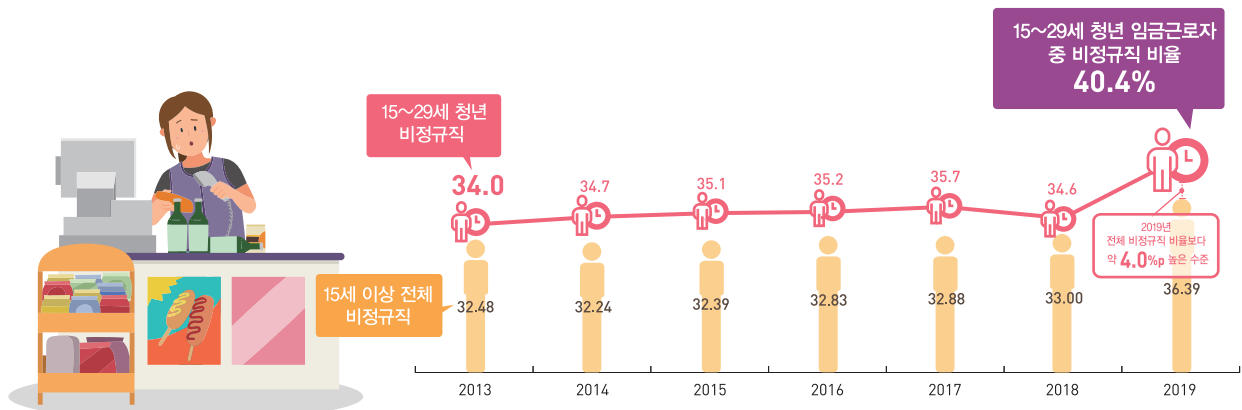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01.17. 인출)

청년 비정규직 비율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4.0%에서 2019년 40.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 전체 비정규직 비율(36.4%)보다 약 4.0%p 높은 수준입니다.

▶ 청년 및 전체 연령 비정규직 비율 (2013~2019)

(단위: %)



주: 각 연도 8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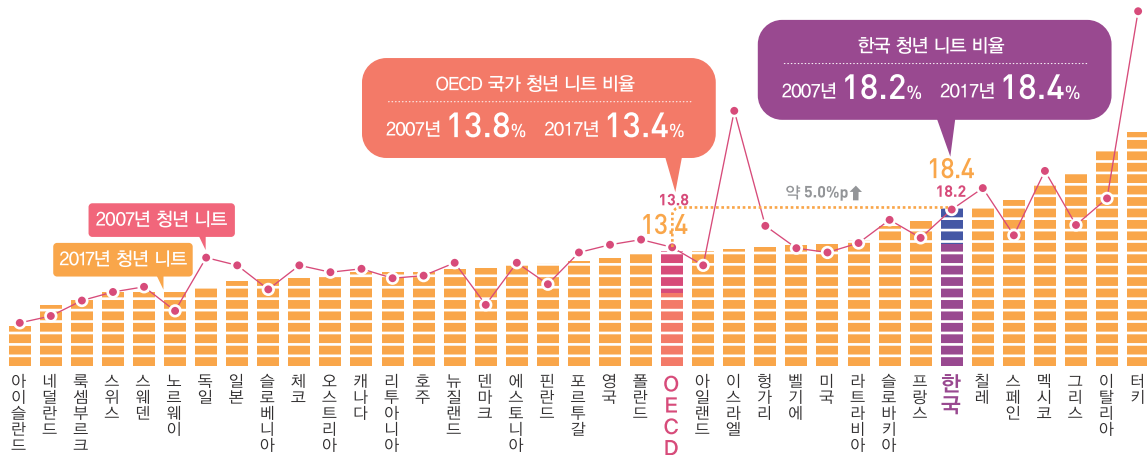
청년

청년 니트(NEET) 비율

한국의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은 2007년 18.2%에서 2017년 18.4%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13.8%에서 13.4%로 다소 감소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5%p 높은 상황

▶ OECD 국가별 청년 니트 비율 (2007,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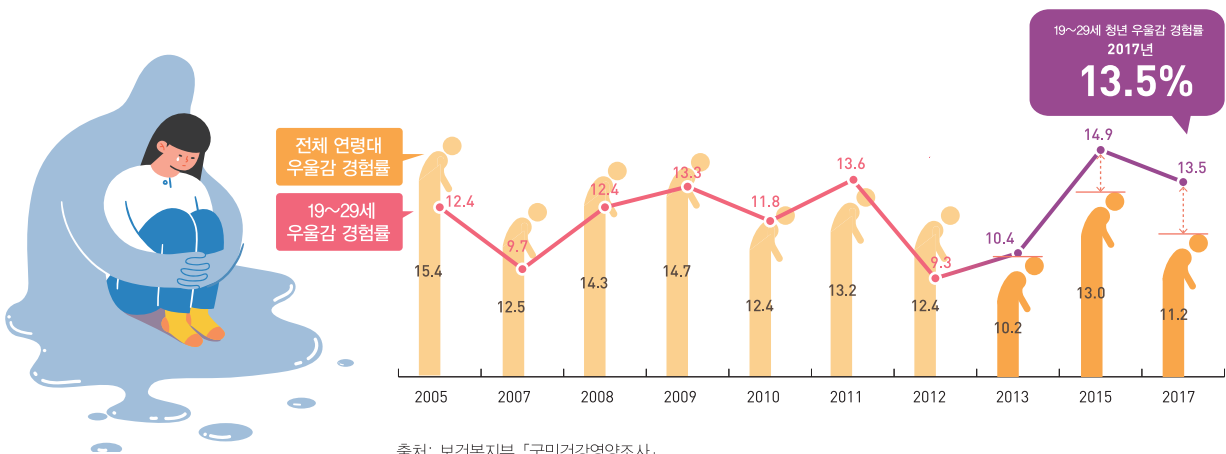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9의 p.89 (그림 5.5) 발췌 (원자료: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

청년 우울감 경험률

19~29세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 14.9%에서 2017년 13.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3년 이후 전체 연령대의 우울감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

▶ 연령대별 우울감 경험률 (2005~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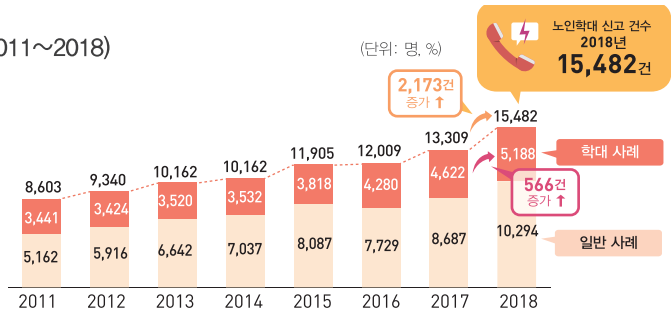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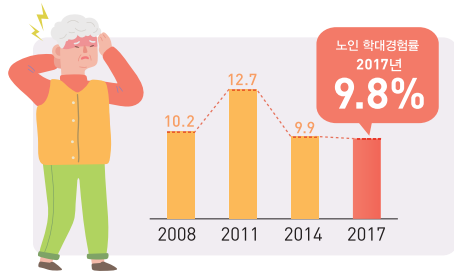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 2019

노인

노인학대 경험률 및 노인학대 신고 건수

노인학대 경험률은 2017년 9.8% 수준이며, 2018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5,482건, 학대사례는 5,18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

▶ 연도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및 노인학대 신고 건수 (201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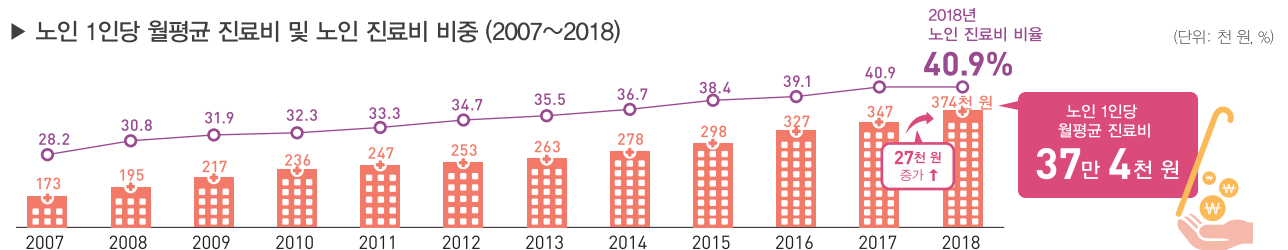


주: 1) 일반 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
 2) 학대 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로 판정된 사례
 자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19 : 학대경험률은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노인 진료비

노인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7년 34만 7천 원에서 2018년 37만 4천 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노인 진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과 동일한 40.9% 수준 유지

▶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노인 진료비 비중 (200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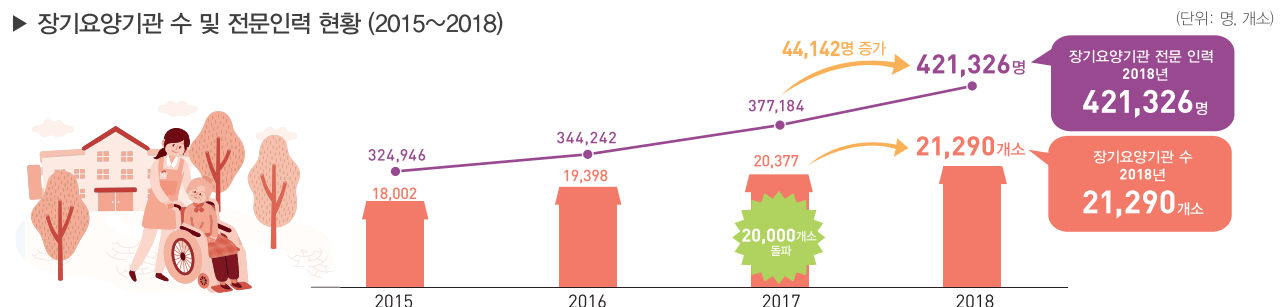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9

장기요양기관 수와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

장기요양기관은 2017년 처음으로 2만 개소를 넘어선 이후에도 2018년 21,290개소로 증가했으며, 전문인력 역시 약 42만 1천 명 수준으로 증가

▶ 장기요양기관 수 및 전문인력 현황 (2015~20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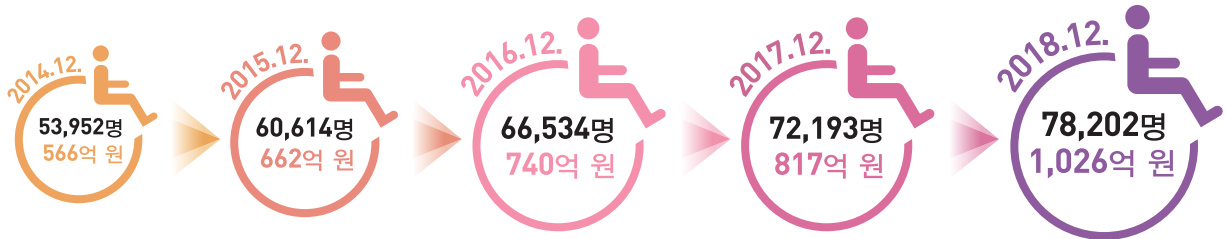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8년 12월 기준 이용자 수는 78,202명으로 2017년 72,193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용액 역시 1,026억 원으로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

▶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억 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4,712명으로 2017년 359,986명에 비해 증가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목표치인 70% 수준에 이룸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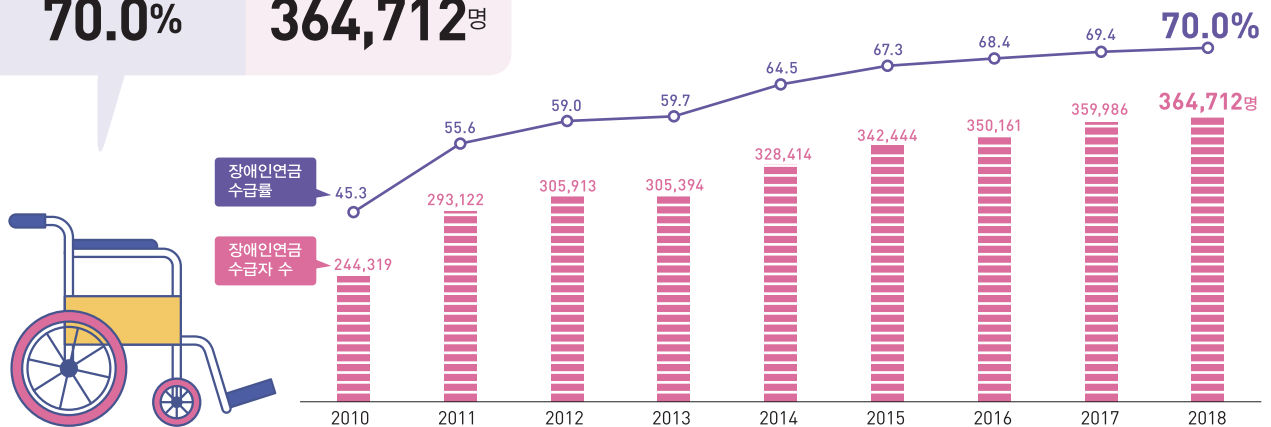
(단위: %, 명)

2018년 장애인연금 수급률

70.0%

2018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364,712명



주: 연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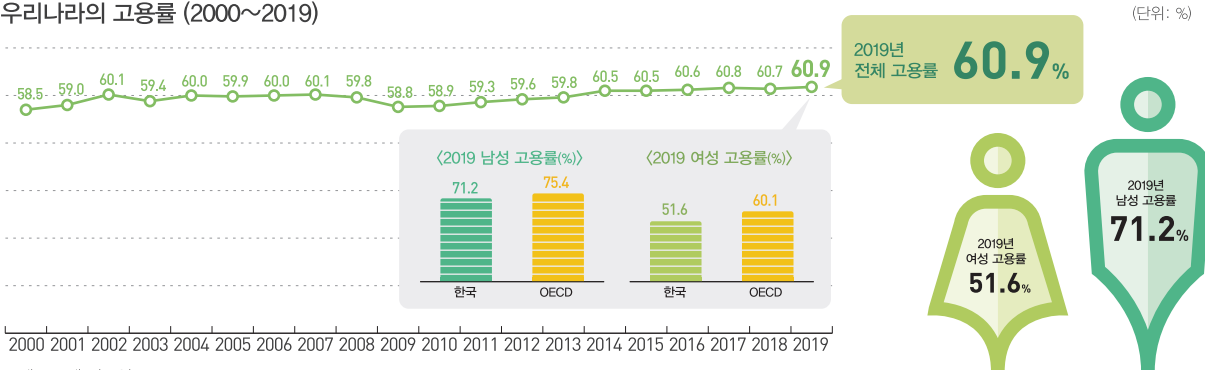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ssis.or.kr>에서 2019.12.01. 인출)

근로

고용률

2019년 고용률은 60.9%로 2018년 60.7%에 비해 다소 증가, 2019년 남성고용률은 71.2%, 여성고용률은 51.6%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고용률 (2000~2019)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01.31. 인출).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19. 11. 23. 03:13 UTC (GMT) 인출)

총 근로시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월 근로시간을 7일 기준으로 환산)은 2018년 38.6시간으로 2017년 41.6시간에 비해 약 3시간 감소

▶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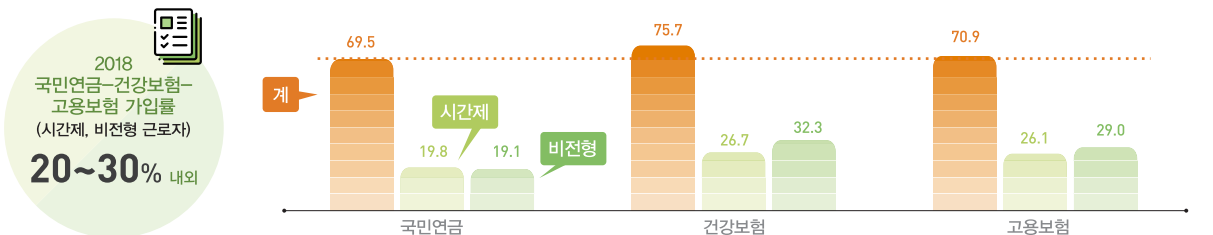
주: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사회보험 가입률

2018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약 20~30% 내외에 불과하여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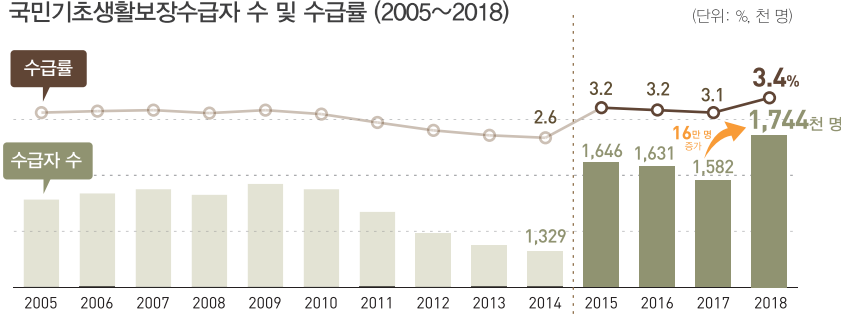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 (<http://kosis.kr>에서 2019.11.21. 인출)

소득보장과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수급자 규모와 수급률은 2015년 급여체계 개편으로 크게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전년보다 약 16만 명(0.3%p) 증가한 약 174만 명(3.4%)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5~2018)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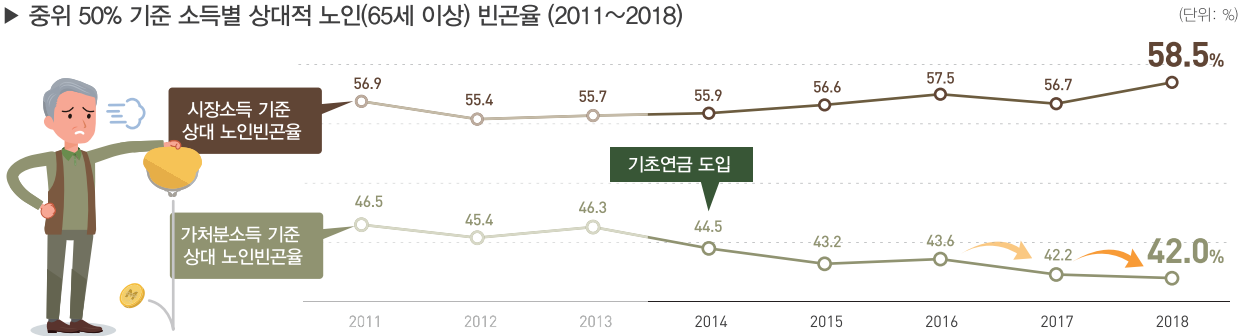
급여체계 개편



상대적 노인빈곤율

2015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7년 42.2%에서 2018년 42.0%로 감소

▶ 중위 50% 기준 소득별 상대적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201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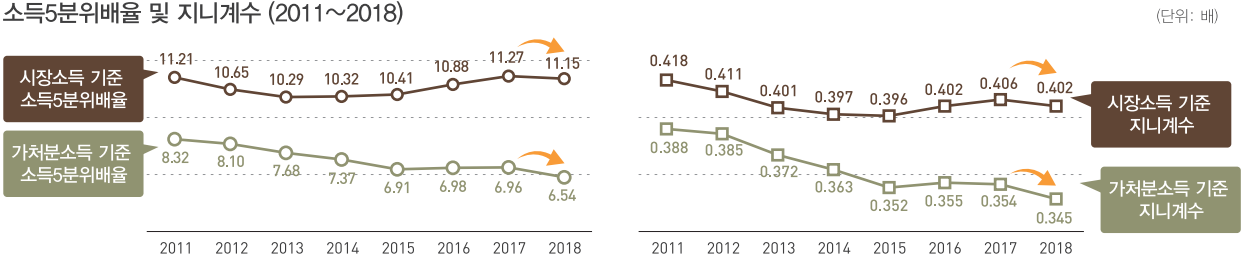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소득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2018년 소득5분위배율과 지니계수 모두 2017년보다 다소 감소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소득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 (201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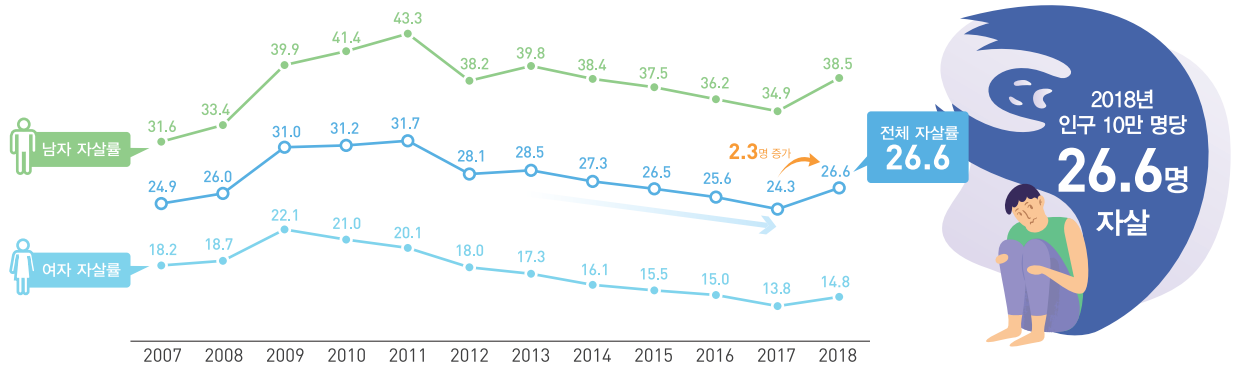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자살률

자살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증가

▶ 성별 자살률 (2007~2018)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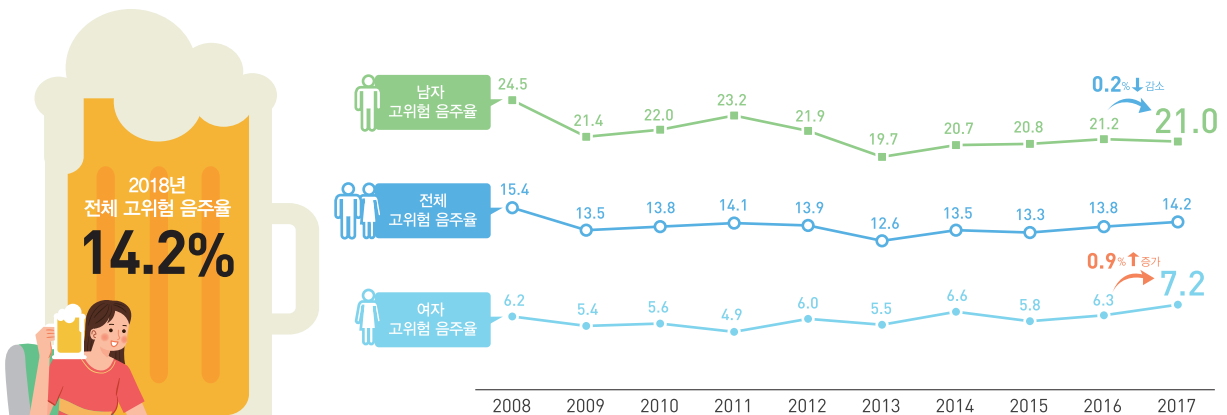
주: 연령표준화 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14. 인출)

고위험 음주율

최근 전체 인구의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남성은 다소 감소 (-0.2%p)한 반면, 여성은 크게 증가(+0.9%p)

▶ 성별 고위험 음주율 (2008~2017)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통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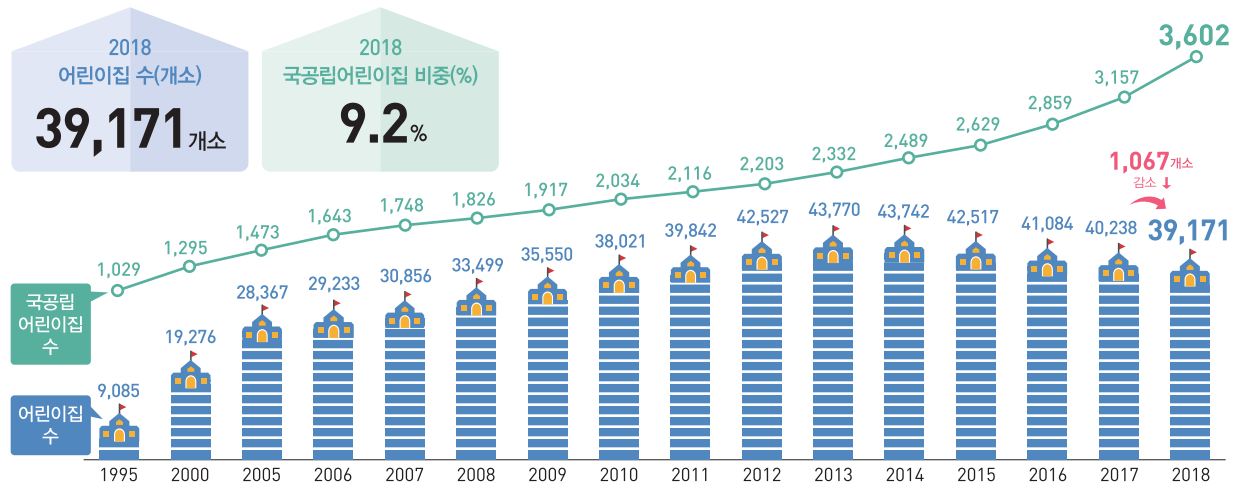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수 및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어린이집 수는 2013년(43,770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39,171개) 처음 4만 개 아래로 감소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증가 추세로서 2018년 기준 9.2% 수준

▶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 (1995~2018)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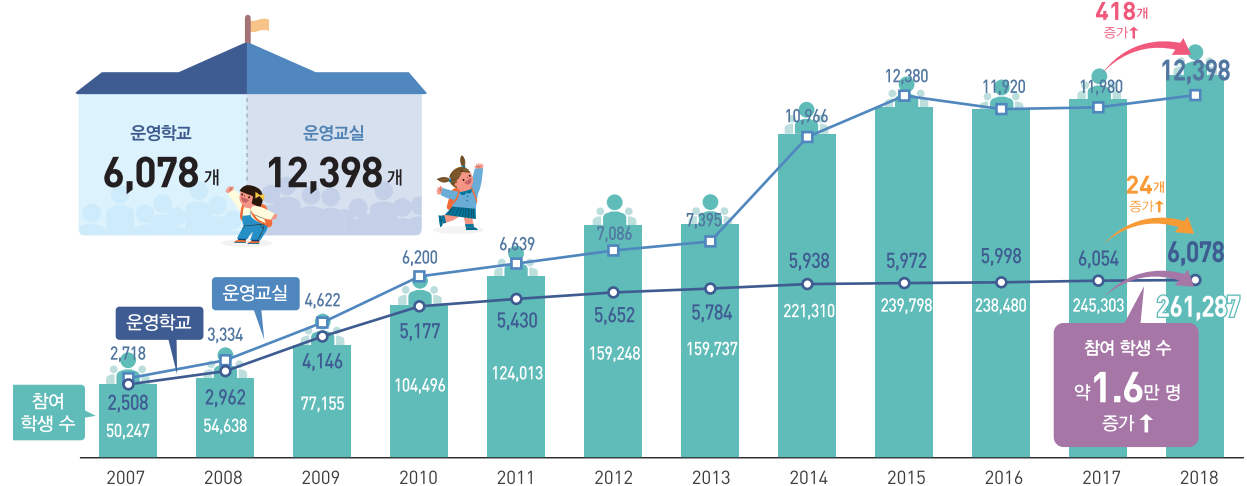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및 참여 학생 수

2018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학교 수(6,078개) 및 교실 수(12,398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참여 학생 수 역시 약 26만 1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만 6천 명 증가

▶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2007~2018)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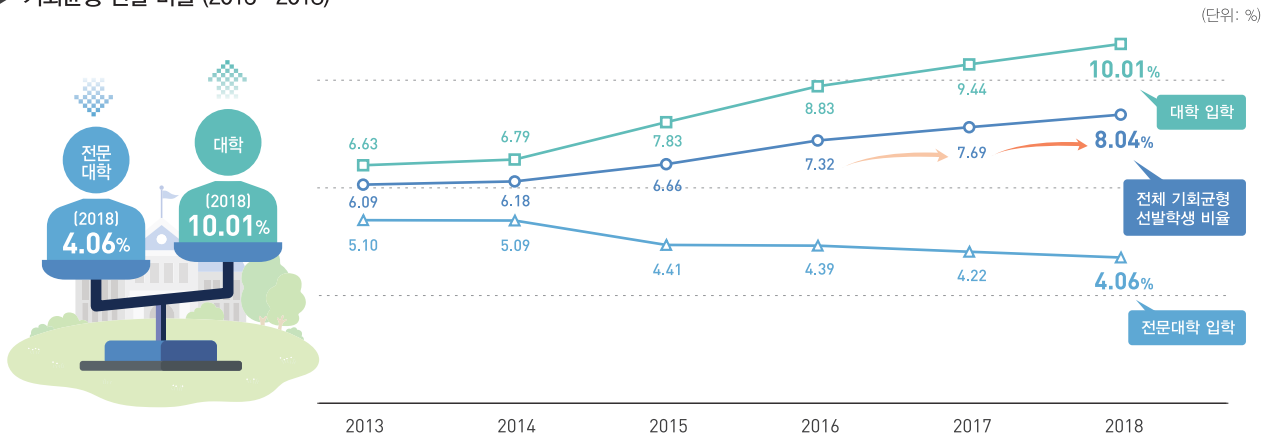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각 연도; 교육부,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안 (보도자료), 2019

보육 및 교육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은 2018년 8.04%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경우 2018년(10.01%)에 처음 10%를 초과한 반면 전문대학은 4.06%로 지속적으로 감소

▶ 기회균형 선발 비율 (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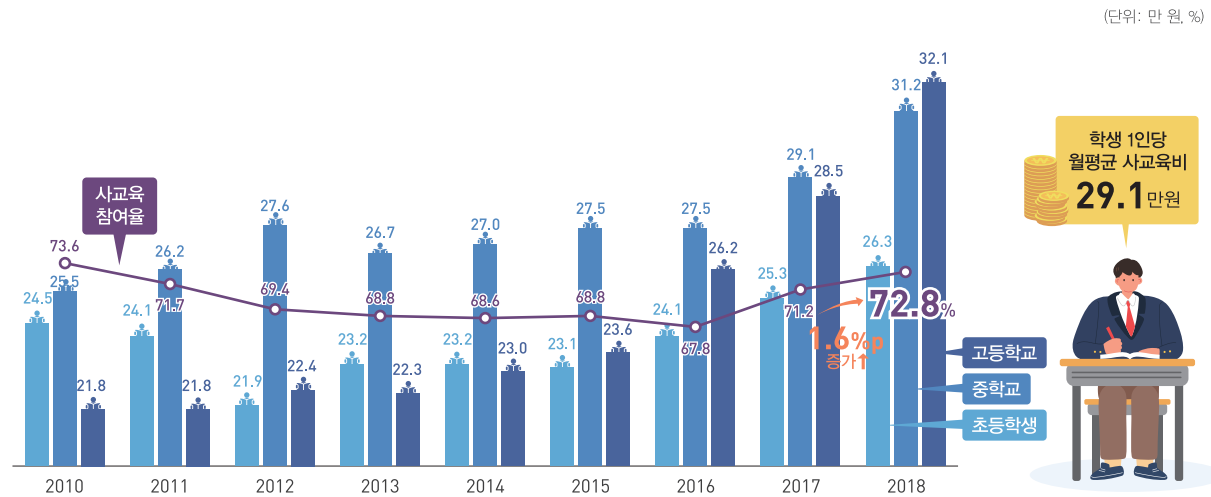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9.11.23. 인출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사교육비

2018년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7년 71.2%에 비해 1.6%p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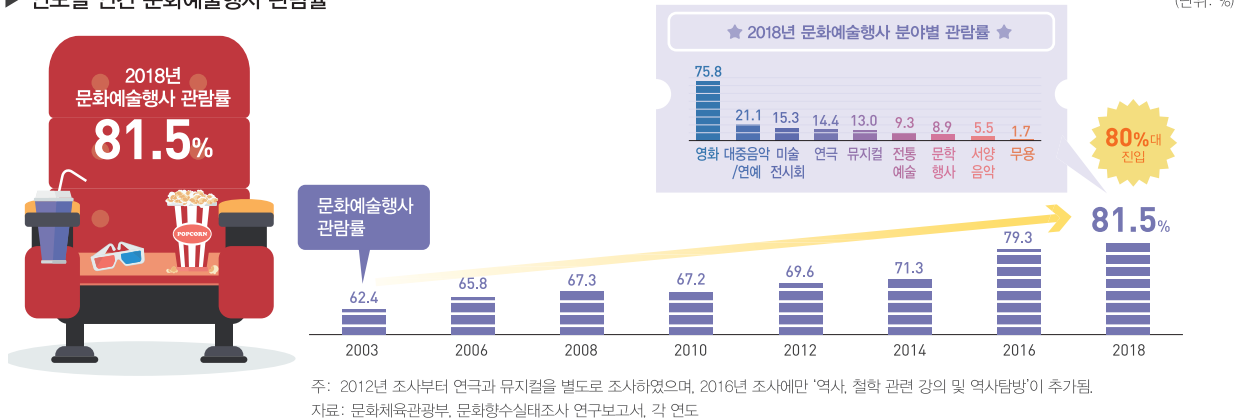


주: 2017년 결과는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을 포함하여 소급 보정됨.
 자료: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5세 이상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81.5%로 처음으로 80%대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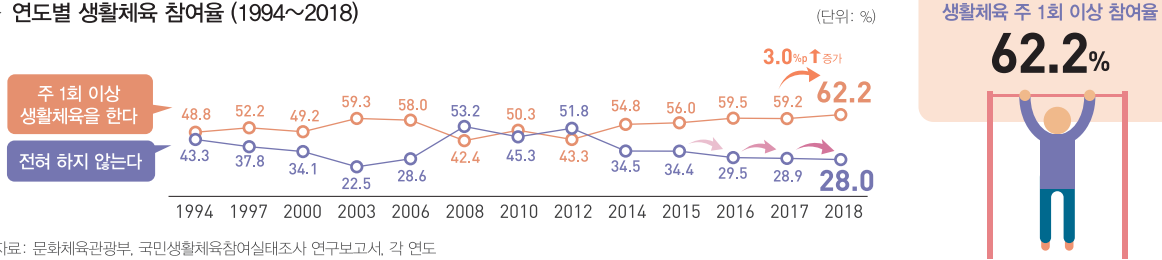
▶ 연도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생활체육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8년 62.2%로 2017년 59.2%에 비해 3.0%p 증가하였으며, 생활체육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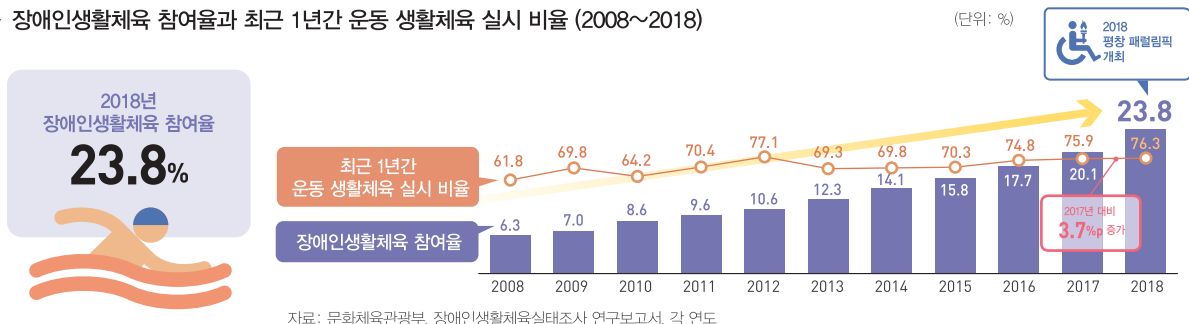
▶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1994~2018)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평창 패럴림픽이 개최된 2018년 23.8%로 2017년 20.1% 대비 3.7%p 증가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과 최근 1년간 운동 생활체육 실시 비율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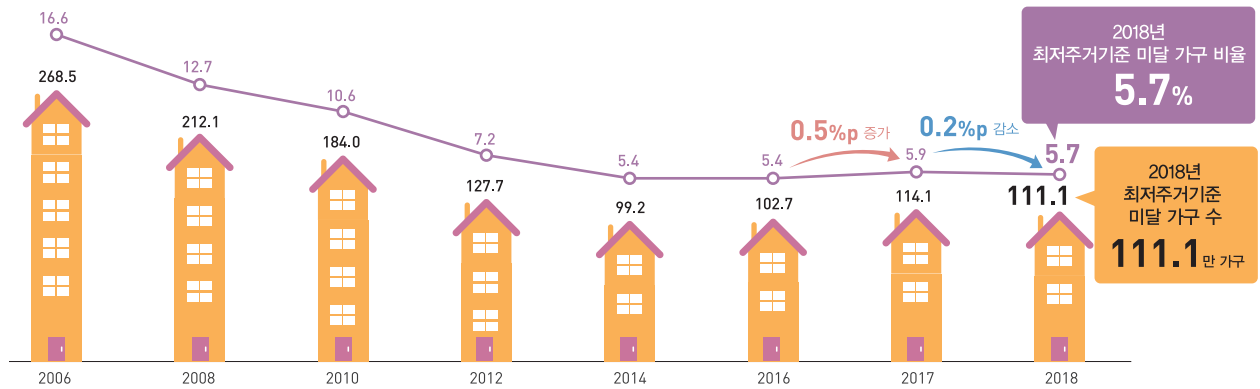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7년 5.9%에서 2018년 5.7%로 감소 추세로 전환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및 비율

(단위: 만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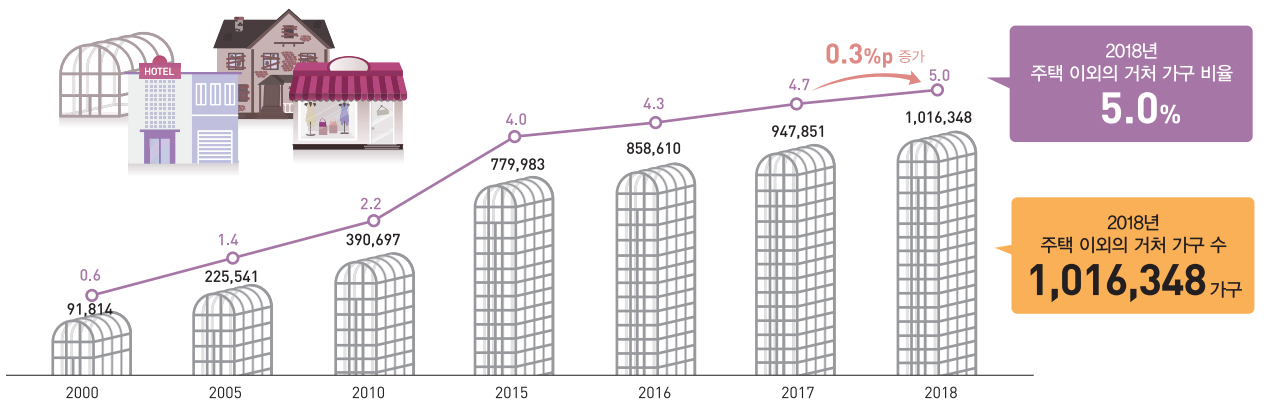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은 2018년 5.0%로 2017년 4.7%에 비해 다소 증가

연도별 주택 이외 거처 가구 규모 및 비율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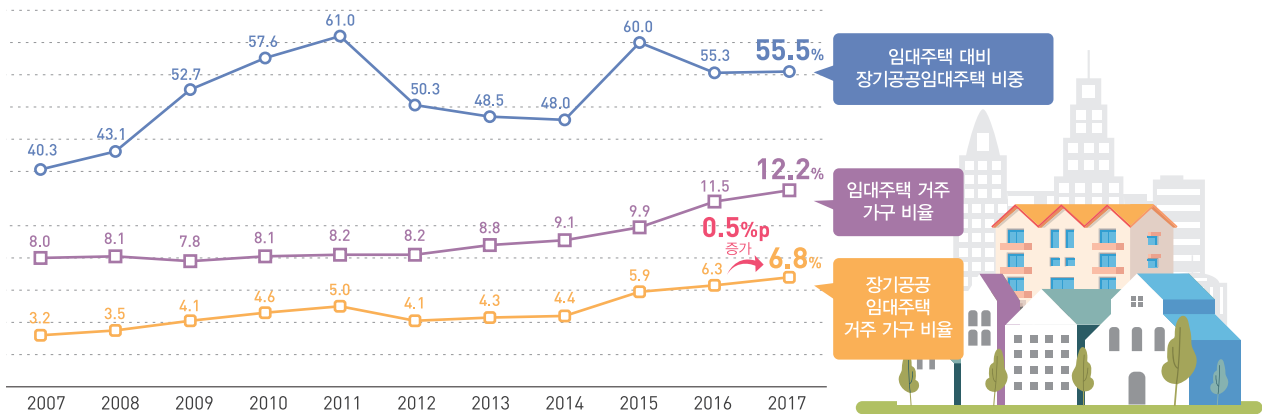
주: 1) 200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2015~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결과로 조사방법이 다름.
 2) 2015년 이후 값은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전수부문의 결과임.
 3) 주택 이외의 거처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으로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6. 인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2017년 6.8%로 2016년 6.3%에 비해 0.5%p 상승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중 (2007~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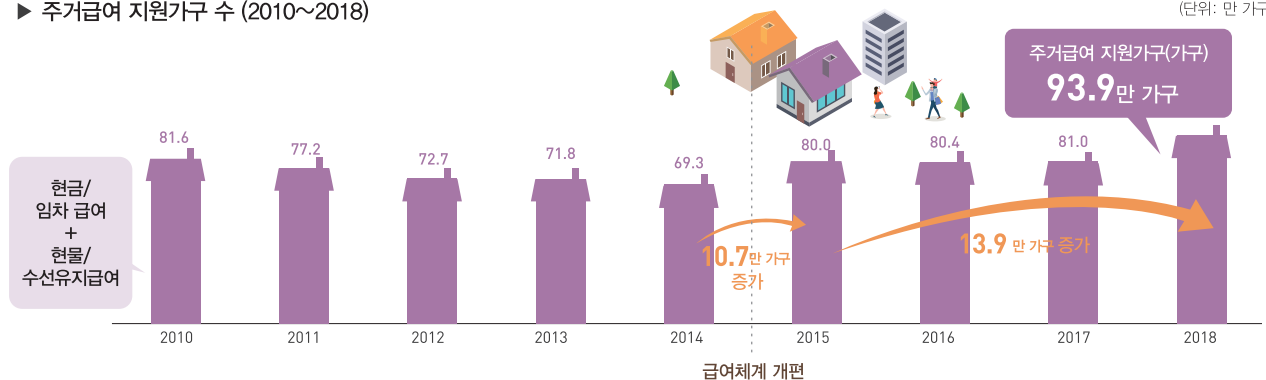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7. 인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주거급여 지원가구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2015년 급여체계 개편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93.9만 가구로 크게 증가

▶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2010~2018)

(단위: 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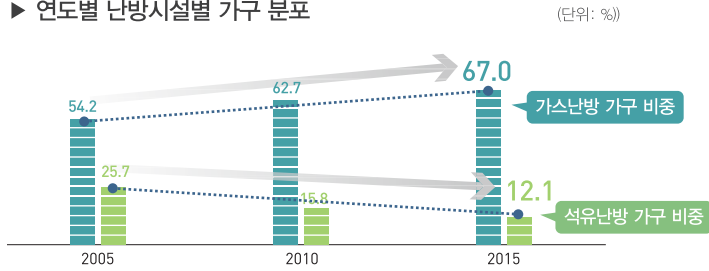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1.28. 인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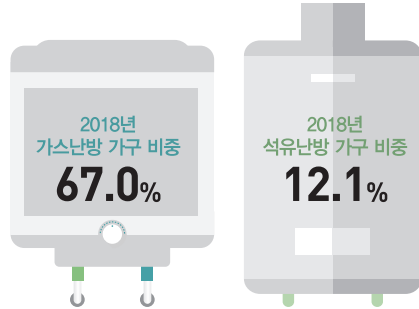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가스난방 가구 비중은 2005년 54.2%에서 2015년 67.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석유난방 가구 비중은 25.7%에서 12.1%로 감소하여 소비여건 개선

연도별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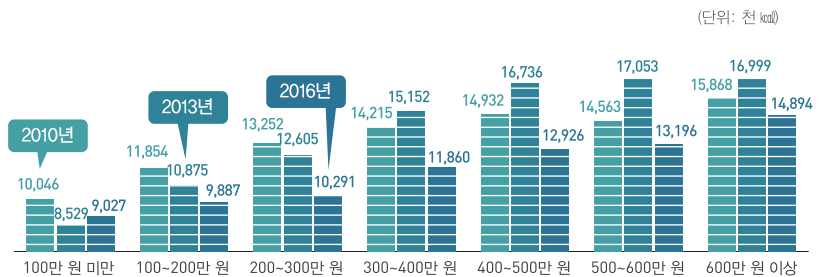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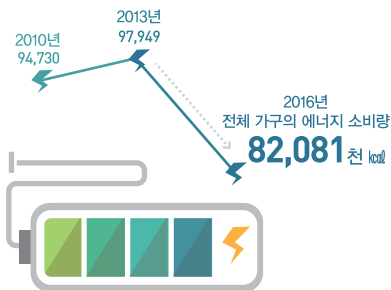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2016년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2013년에 비하여 16.2% 감소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인한 감소 추세로 예상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7

연료비 지원

2015년 도입된 에너지바우처의 2018년 지원액은 총 498억 원으로 2017년보다 14억 원 감소한 반면, 1인 수급가구 증가로 지원가구는 2018년 56.5만 가구로 2017년에 비해 1.9만 가구 증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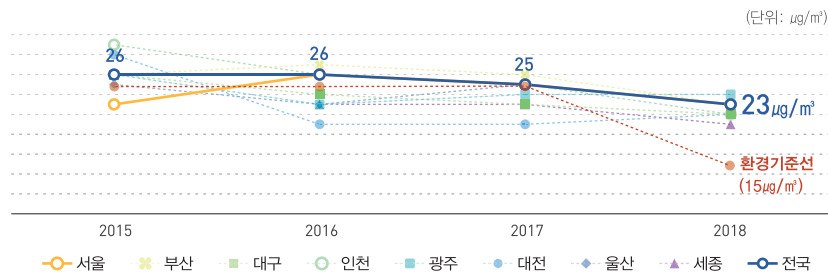


환경

주요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초미세먼지(PM2.5) 전국 연평균 농도는 2018년 $23\mu\text{g}/\text{m}^3$ 으로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26\mu\text{g}/\text{m}^3$)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전국의 모든 측정대상 도시가 2018년 강화된 기준($15\mu\text{g}/\text{m}^3$)보다 높은 수준

▶ 주요도시 연도별 PM-2.5 농도 (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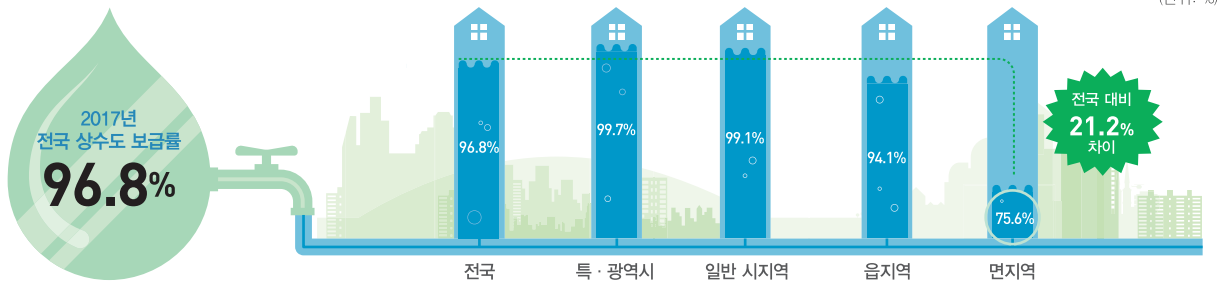


주: 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연평균 수치를 활용함.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은 매우 높으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제외 시 농어촌의 보급률은 75.6%에 그쳐 지역 간 격차 해소 노력 필요

▶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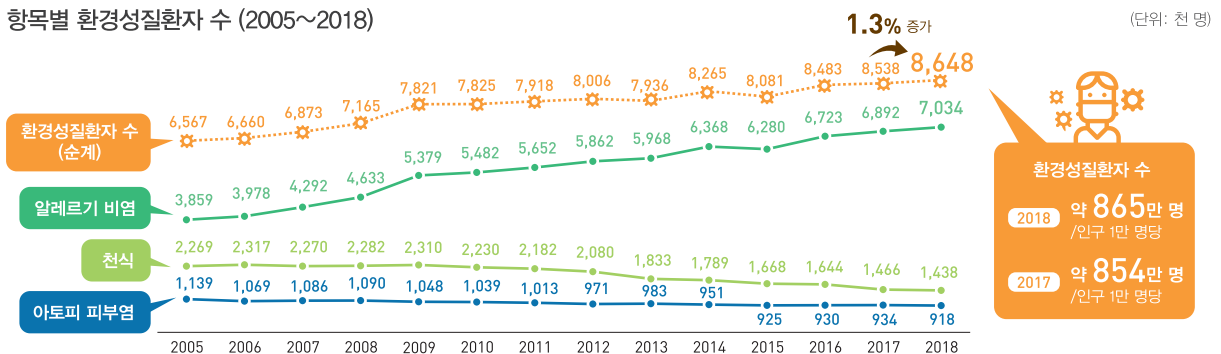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2016 상수도통계, 2017

환경성질환자 수

환경성질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875만 명 (중복질환자 제외)으로 2017년 약 854만 명에 비해 약 1.3% 증가

▶ 항목별 환경성질환자 수 (2005~2018)



환경성질환자 수

- 2018 약 865만 명 /인구 1만 명당
- 2017 약 854만 명 /인구 1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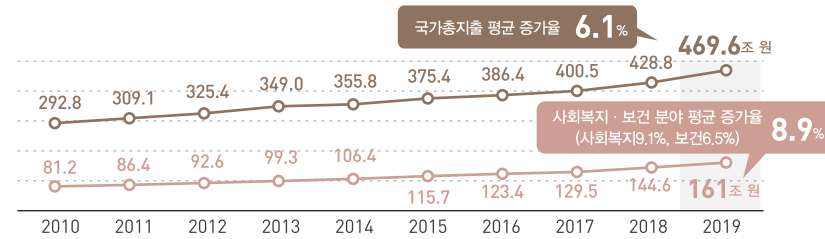
주: 순계=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내부자료), 각 연도

사회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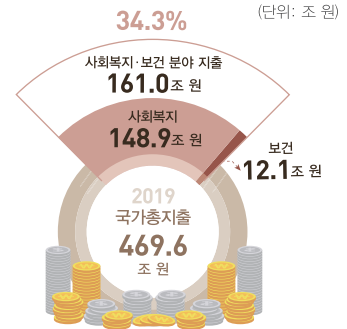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2019년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61조 원(사회복지 148.9조 원 & 보건 12.1조 원)으로 국가총지출의 34.3%를 차지하며,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8.9%(사회복지 9.1% & 보건 6.5%)로 국가총지출 증가율 6.1%보다 빠르게 증가

▶ 국가 총지출 및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증가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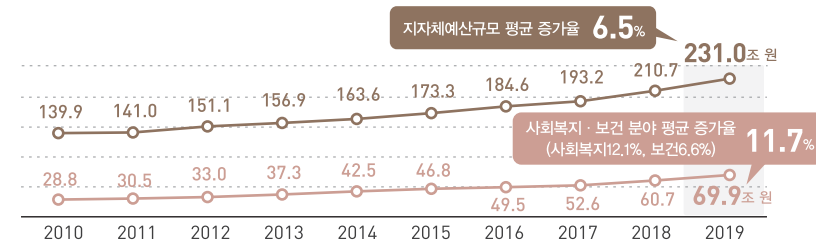
주: 본예산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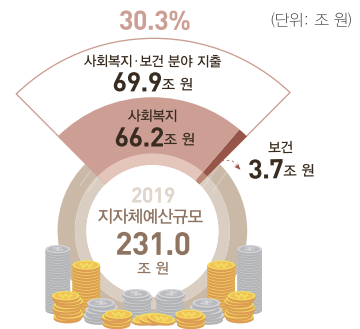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2019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69.9조 원(사회복지 66.2조 원 & 보건 3.7조 원)으로 지자체 총지출 중 30.3%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30%를 넘었으며,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11.7%(사회복지 12.1% & 보건 6.6%)로 지자체 총지출 증가율 6.5%보다 빠르게 증가

▶ 지자체예산규모 및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증가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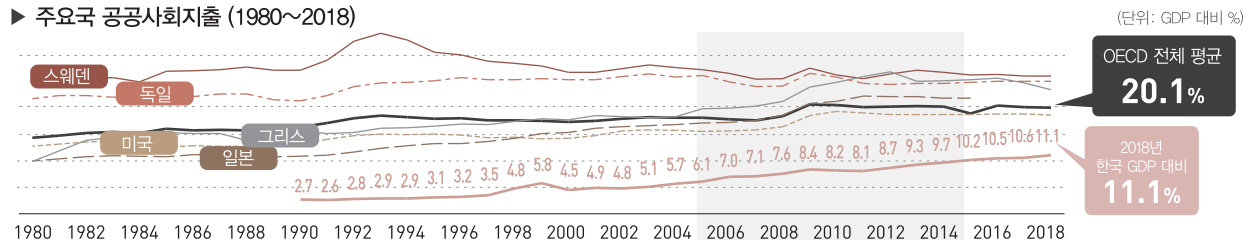
주: 당초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OECD SOCX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예측치 기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2005~2015) 증가율은 11.0%로 OECD 평균 5.3%보다 약 2배 빠른 속도

▶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18)



OECD 평균 증가율 5.3% < 약 2배 < 한국 평균 증가율(2005~2015) 11.0%

주: OECD SOCX의 각국자료는 1980~2018년까지의 자료이며, 1980~2015년은 확정치이고 2016~2018년은 예측치임(단, 일본은 2015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19.11. 인출)